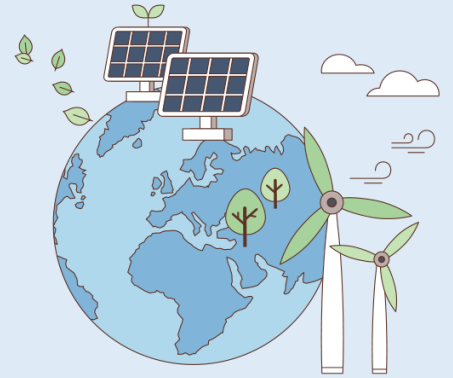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EU, 배기개선 기술 개발'않기'로 담합한 BMW, VW 등에 1.1조원 벌금 *뉴시스*
-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없는 탄소중립법? "이럴거면 법 왜 만드냐" 격론 *경향신문*
- KT, 탄소배출량 2017년 대비 증가세 이어가...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뉴스위치*
- 유럽서만 매년 1조원 날판...글로벌 탄소세 '모락모락' *매일경제*
-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온실가스 배출 불법행위 첫 인정 *리걸타임즈*
- ESG 우수기업에 인센티브...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머니투데이*
- "탄소중립이 新무역장벽...기업 ESG 경영 촉진 인센티브 시급" *연합뉴스*
- 글로벌 석유기업들, 160조원어치 자산 매각...'친환경 전환' *뉴스핌*
- 금호석유화학, 또 배출기록 '허위기재' 적발돼 *헤럴드경제*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지배구조 톨아보기] 올리브영 상장으로 경영 승계 밑그림 그리는 CJ *조선비즈*
- 두산그룹, 은행자본 증속 탈피 위한 열쇠 '법캣' *더벨*
-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이번 주 승인 결정 *조선비즈*
- LG, 카카모빌리티에 1000억 투자...전기차 신사업 '속도' *한국경제*
-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중흥건설 선정 *경향신문*
- 공정위, '구내급식 몰아주기 의혹' SK 현장조사 *연합뉴스*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기 정비 이어 도색까지 맡는다 *한겨레*
- '100억 규모 법인세 소송' 셀트리온제약, 항소심도 승소 *아시아경제*
- 일론 머스크로 본 '성공한 CEO'의 명암...'과신행 리더십' 혁신엔 藥 M&A *매경이코노미*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ESG경영' 만행 현대차, 협력사 300곳 ESG 평가한다 *파이낸셜뉴스*
- 쿠팡, 검색어 조작·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위 조사 *국민일보*
- 매일 300명 다치고 6명 죽었는데... 중대재해법 시행해도 70%는 처벌 불가 *한국일보*
- 현대차 노조 파업 결정엔 성과급 아닌 '다른 이유' 있다 *머니투데이*
- 택배노조 "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문제 해결 나서야 " ...단체교섭 촉구 *뉴스1*
- 현대제철, 자회사 세위 사내하청 7천명 정규직 채용한다 *한겨레*
- 직원 1인당 1000만원 상당 주식 지급...네이버, 스톡그랜트 첫 시행 *뉴스핌*
- '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 영업정지 피해...과징금 8억2000만원 부과 *부산일보*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이투데이*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유럽투자은행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에 1,347조원 투자" *조선일보*
- 산은, 녹색기후기금(GCF) 사업준비자금 120만 달러 확보 *뉴시스*
- 현대건설, 노르웨이중앙은행 블랙리스트 올라 '환경파괴 우려' *이코리야*
- [세계 30개 자산운용사 평가] 탈석탄 기업 투자 제외 정책 공개 23% 불과 *내일신문*
- WHO " 청정 기술· 인프라 투자해야 " ...G20에 '녹색 복원' 촉구 *뉴시스*
- "이해당사자와 소통" 강화하는 기업들 *세계일보*
- LG화학, 1000억 펀드 조성 中 ESG 경영지원 *헤럴드경제*
- 중소기업중앙회, 자산 투자 때 ESG 평가요소 반영 *연합뉴스*
- [마켓인]꾸준한 투자목적 변경...수시로 시그널 보내는 국민연금 *이데일리*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SG FOCUS UPDATES

회복탄력성 및 지속가능성 기반의 포트폴리오

- 세계자연기금 2021

E

- 세계자연기금(WWF)은 매년 PRI에 서명한 유럽과 아시아 대형 운용사들의 영문 공시 자료(상장 주식 관련)를 분석한 RESPOND(회복탄력성 및 지속가능성 기반 포트폴리오) 분석 자료를 발간하고 있음.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용자는 벤치마킹/피어 그룹의 책임투자 역량 및 TCFD/PRI 권고안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음
- 2021 보고서에서는 30개 자산운용사(유럽 22개, 아시아 8개)의 분석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분석 결과 유럽과 아시아의 자산운용사 모두 책임투자의 기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6개 부문과 14개 지표에서 유럽 자산운용사들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즉, 기후변화 및 자연자본 손실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전세계 자산보유기관들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측면에서 유럽 자산운용사들이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아시아 자산운용사들의 기후 공시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29개 자산운용사가 TCFD 권고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나 TCFD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TCFD 권고안에 맞춘 공개 보고를 하는 운용사는 유럽 15개사와 일본 2개사에 불과하며 아시아 운용사는 전무함
- 또한 1.5°C 목표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겠다는 서약을 통해 자사의 탈탄소화 전략을 보강한 자산운용사는 전체 30개사 중 3분의 1 미만에 불과함. 유럽 11개사와 일본 1개사만 탈탄소화 전략을 공개하고 있었고, 그 중 7개사만 과학기반목표를 설정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파리협정의 목표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겠다고 서약함
- WWF는 보고서에서 아시아 자산운용사들의 책임투자 역량 구축이 더욱더 가속화되어야 함을 촉구함. 적극적 옰너십, ESG 역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및 전반적인 투명성 제고 노력과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큰 격차가 존재함
- 또한 과학기반목표 네트워크(Science-Based Targets Network) 등의 기관이 개발한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기업과 포트폴리오를 지구위험한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과학기반 방법론과 지표의 개선을 위해 협력할 것을 요구함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07.05

S

-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원칙은 시장 기반의 정책(탄소세, 탄소거래제, 상쇄 매커니즘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을 저탄소 경제활동으로 유도(nudge)하여 경제주체들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임
- 다만 탄소세 제도는 생산기술의 차이나 화석연료 대체 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후생의 변화(조세의 귀착)는 다를 수 있으므로, 탄소세 정책으로 인한 후생의 변화가 심한 경제 부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EU의 탄소국경세는 탄소세 정책이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을 방지하고 관세와 환급을 통해 두 국가의 시장에 동등한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23년 시행을 목표로 2021년 상반기 안에 법안을 마련할 예정임
- 만약 EU가 역내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36달러)를 전 분야에 부과하는 경우 인도, 중국, 러시아, 터키, 우리나라 등 배출량 규모가 크고 배출 집약도가 높은 국가에 상당한 수준의 관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는 1차 철강의 대EU 수출이 11% 이상 감소하나 철강을 원자재로 하는 금속제품의 대EU 수출은 0.32% 소폭 증가함. 또한 해당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세계 제조업 수출변화를 살펴보면, 대EU 수출이 감소하는 대신 일본, 미국 등으로 수출이 증가함. 이후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지는 EU 외 국가들의 탄소국경세 정책에 대한 반응에 달려있음
- 1차 철강제품의 EU 수입품에 대해 탄소 관세 부과 시 단위 생산당 탄소배출량이 적은 일본과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을 나타내며, 중국과 인도, 터키, 러시아는 생산과 소비자 후생 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됨

ESG 투자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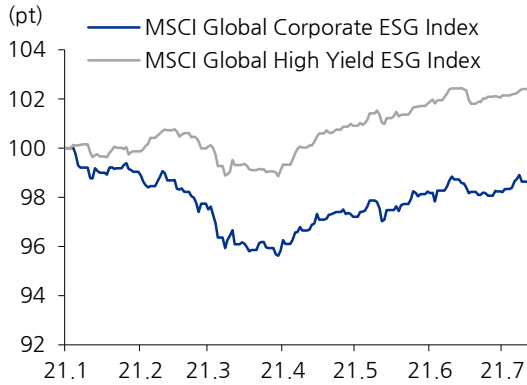
- 대한상공회의소 21.07.07

G

- ESG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1) ESG 평가체계 정비, 2) ESG 분류체계 확립, 3) ESG 채권 발행 기업 및 투자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4)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공시 및 평가기준 차등화 등을 들 수 있음
- 1) 현재 평가기관별 기업의 신용평가 결과에 비해 ESG 점수의 차이가 현저하게 큰 것으로 나타남. 다만 평가지표나 방식의 표준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시각도 있음
- 2) ESG 평가체계 및 ESG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그린워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 국내 ESG를 표방하는 펀드와 일반 펀드 간 ESG 수준에 유의한 수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음
- 3) 기업에 따라 ESG 채권 발행이 일반 회사채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음. ESG 채권은 자금의 목적과 관리체계에 대해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므로 인증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 따라서 초기에는 발행 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4) 국내 기업 ESG 공시는 '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가 시행되며 '30년부터는 이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임.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ESG 공시를 위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이에 따른 평가 또한 유리하므로, 공시 의무화 이후 소규모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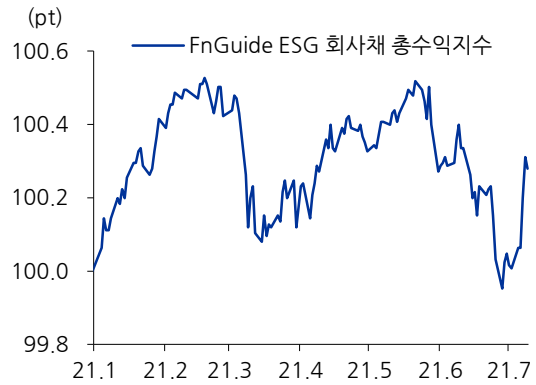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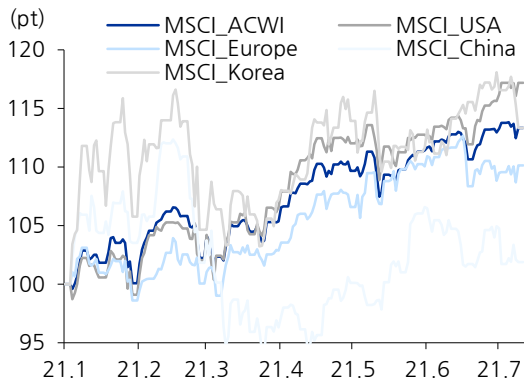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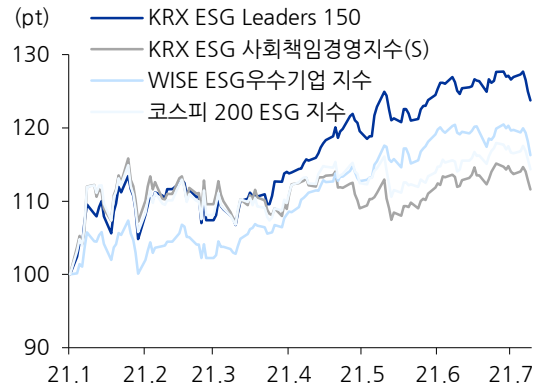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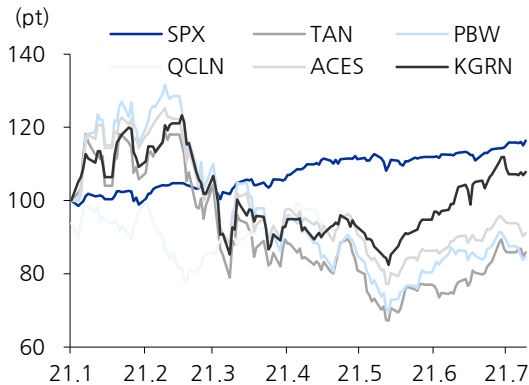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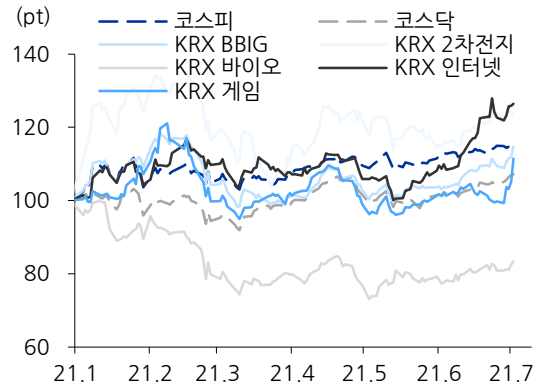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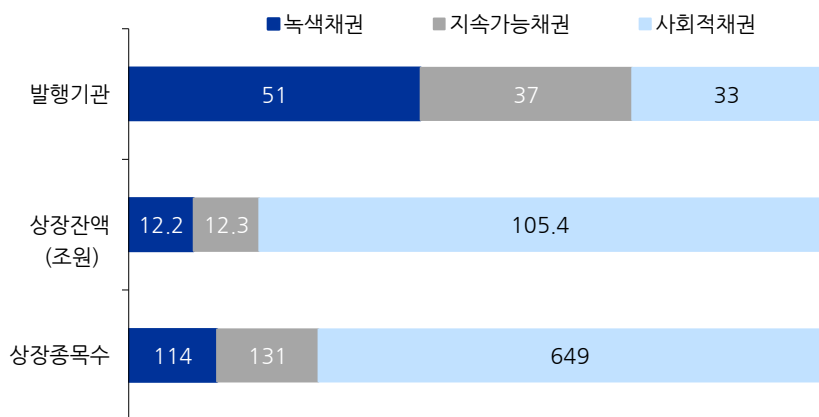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녹색채권	현대모비스 144-1(녹)	2021/07/09	1.58700	150,000
녹색채권	현대모비스 144-2(녹)	2021/07/09	1.95700	140,000
녹색채권	현대모비스 144-3(녹)	2021/07/09	2.08100	60,000
지속가능채권	케이비캐피탈 476-1(지)	2021/07/09	1.63400	60,000
지속가능채권	케이비캐피탈 476-2(지)	2021/07/09	1.73400	50,000
지속가능채권	케이비캐피탈 476-3(지)	2021/07/09	1.75900	70,000
지속가능채권	케이비캐피탈 476-4(지)	2021/07/09	1.77000	20,000
지속가능채권	케이비캐피탈 476-5(지)	2021/07/09	1.84000	50,000
지속가능채권	케이비캐피탈 476-6(지)	2021/07/09	1.91500	30,000
지속가능채권	케이비캐피탈 476-7(지)	2021/07/09	2.09800	20,000
사회적채권	중소기업은행(신)2106 이 2A-04(사)	2021/07/09	1.17000	580,000
사회적채권	중소기업은행(신)2106 이 1.5A-11(사)	2021/07/09	1.12000	300,000
녹색채권	현대삼호중공업 16-1(녹)	2021/07/08	2.80000	34,000
녹색채권	현대삼호중공업 16-2(녹)	2021/07/08	3.32000	66,000
녹색채권	대한항공 95-1(녹)	2021/07/07	2.39200	70,000
녹색채권	대한항공 95-2(녹)	2021/07/07	3.13600	136,000
녹색채권	대한항공 95-3(녹)	2021/07/07	3.67200	144,000
녹색채권	DL 에너지 7-1(녹)	2021/07/07	1.91400	15,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55(사)	2021/07/05	1.63600	31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33(사)	2021/07/05	1.92100	23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34(사)	2021/07/05	2.16700	40,000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2%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8%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6.30 기준)